

합천군 초등학교 학부모의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및 구강보건 인식조사

이선미

부산치대 예방치과학교실

1. 연구주제

합천군 초등학교 학부모의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 관한 의식과 구강보건에 관한 의식을 조사하여 보건소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학부모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 및 참여를 유도 하고자 함이다.

2. 연구문제 및 목적

합천군보건소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비롯하여 불소용액양치사업, 치아홈메우기사업 이외에도 어린이집 및 초·중학교 아동들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사업을 수년간 실시하고 있다. 이에 학부모의 수돗물 이용과 섭취실태 및 수돗물불소농도 조정사업에 대한 의식과 일반적인 구강보건의식에 대한 학부모의 반응을 파악함으로써 보건소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학부모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 및 참여를 유도 하고 사업의 확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수돗물불소농도 조정사업에 대한 의식 및 학부모의 일반적인 구강보건의식에 대하여 살펴보았다.

3. 연구방법

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합천읍 소재 초등학교(2개교)1-3학년 학부모 600명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학생을 경유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였다. 설문 응답한 학부모는 557명으로서 설문응답률은 92.8%이었다. 설문 응답자 중에서 39세 이하가 367명으로 총 설문응답자의 65.9%를 차지하였고, 40세 이상이 22.8%이었으며, 연령 무 응답자가 63명으로 11.3%를 차지하였다. 설문응답자 중 남자가 83명으로 총 응답자의 14.9%, 여자가 404명으로 총 응답자의 72.5%, 성별 무 응답자가 70명으로 총 응답자의 12.6%이었다. 설문조사 내용은 가정에서 식수나 조

리용으로 사용하는 물의 종류,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 대한 생각,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우식예방효과, 불소와 치아홈메우기의 효과 인지여부, 정기치과내원 여부 등 이었다.

4. 연구결과

4.1. 섭취하는 식수로서 수돗물이라고 응답한 학부모가 54.6%이었고, 정수기를 이용하는 학부모는 41.5%이었다

4.2. 밥을 하거나 음식물 조리에 사용하는 물의 종류는 수돗물이라고 응답한 주민이 69.8%이었으며, 정수기 물이라고 응답한 학부모는 28.7%이었다.

4.3.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 지속되어야 우식증 예방효과가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대해서는 74.9%가 '옳은 것 같다', '모르겠다' 라고 응답한 학부모는 22.1%, '틀린 것 같다'라고 응답한 학부모는 2.7%이었다.

4.3.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안전성에 관해서는 안전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관하여 '옳은 것 같다'라고 응답한 학부모는 63.2%, '모르겠다' 34.3%, '틀린 것 같다' 2.2%이었다.

4.5.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대한 찬성여부는 '잘한 일이다'가 56.2%, '잘못한 일이다'가 3.4%, '모르겠다'가 40.4%이었다.

4.6. 우식증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'잇솔질'이라고 응답한 학부모는 96.4%로 가장 높았고, 잇몸병을 예방하는 방법으로도 '잇솔질'이라고 응답한 학부모가 80.1%로 가장 높았다.

4.7. 아침식후 잇솔질 비율은 80.4%, 점심식후 67.9%, 저녁식후 75.2%, 간식후는 8.3%로 간식 후 잇솔질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.

4.8. 작년 한 해 동안 치과진료 경험이 있는 학부모 전체 56.6% 이었고, 치면세마(scaling) 경험이 있는 학부모는 28.4%이었다.

4.9. 치주병이 생기는 원인이 '이를 잘 닦지 않아서' 라고 응답한 학부모는 50.8% 이었고, '유전적으로 잇몸이 약해서' 28.2%, '영양이 부실한 탓이다'라고 응답한 학부모도 전체 11.1%이었다.

4.10. 치아건강에 대한 인식에서는 '건강하다'라고 응답한 학부모가 39.1%, 건강하지 않아서 충치치료나, 잇몸치료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부모가 60.0%로 절반 이상이 치아가 건강하지 못하여 치료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.

4.11. 흡연자율은 전체적으로 남자 37.3%, 여자 0.5%이었고 남자 중에서 39세 이하 연령군에서 24.1%, 40세 이상 연령군에서 46.1%로 40세 이상 연령군이 39세 이하 연령군 보다 높게 나타났다($p < 0.001$).

5.결론

5.1. 수돗물 식수 이용률은 54.6%, 수돗물 음식물 조리수 이용률은 69.8%이었다.

5.2.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우식예방효과 인지율은 74.9%이었다.

5.3.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찬성률은 56.2%이었고, 안전성 인지율은 63.2%이었다.

5.4. 지난 1년간 치과진료 경험율은 56.6%이었고, 치면세마 경험(scaling)이 있는 학부모는 28.4%이었다.

5.5. 치아건강인식률은 '건강하다'라고 응답한 학부모가 39.1%, 건강하지 않아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학부모가 60.0%로 절반 이상이 치료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.

5.6. 남녀별 흡연률은 남자가 37.3%, 여자가 0.5%이었고, 남자 중에서 39세 이하 연령군에서 24.1%, 40세 이상 연령군에서 46.1%로 40세 이상 연령군이 39세 이하 연령군보다 높게 나타났다($p < 0.001$).